백두산2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주체91(2002)년 5월 1일

주체의 조국관의 정립과 심화발전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친히 새 조국 건설의 첫 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주체35(1946)년 5월.

안녕하십니까.

흔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여서 지나온 역사적 시기 쉼없이 그에 관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조국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정립하고 심화발전시키지 못했죠. 가장 올바른 조국관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비로소 정립되고 심화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주체의 조국관의 정립과 심화발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혁운동발전사를 보면 선행한 역사적 시기에는 변혁투쟁과 조국, 변혁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조국건설, 조국의 부강번영이 결합되지 못했습니다.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 변혁투쟁은 조국이라는 개념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조국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고향산천, 선조들의 넋이 깃든 곳이 아니라 변혁투쟁의 단위, 목적, 합법칙적 노정과 연결되고 민족민중의 자주성과 결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되게 됐는데요. 조국과 민족적 자주성을 결합시켜 명시한 참다운 조국관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해 주체의 조국관을 명시하심으로써 비로소 정립되게 됐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주체의 조국관의 사상이론적 기초로 되는 **김일성**주의를 창시하셨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매개 나라 변혁투쟁의 주인은 그 나라 민족민중이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 변혁운동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김일성주의에 의해 온갖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 대국주의와 지배주의가 원리적으로 격파되고 모든 것을 자기 나라의 변혁투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나라 변혁운동승리에 복종시켜 나가는 관점과 입장이 정립되게 됐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모든 나라의 민족민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민족민중의 진정한 조국을 찾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조국으로 건설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 일체화시키고 조국에 관한 참다운 주체적 견해와 관점, 입장을 정립할 수 있게한 사상이론적 기초입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영토와 민족, 민중, 주권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이 다 자주적으로 보존되어야 참다운 조국으로 될 수 있다고 천명하심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에 관한 주체적 이해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민족민중의 참다운 조국은 단순히 나서 자란 고향땅, 민족민중이 사는 영토가 아니라 그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으로 돼야 합니다. 민족민중을 떠나 조국에 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써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써 삶의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민족민중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있으면 개인도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죠. 민족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돼야 그 나라가 그들의 참된 조국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족민중의 자주적인 삶은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써의 지위를 부여하고 주인으로써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케 하는 자주적인 정권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있어도 자주권이 없는 식민지정권은 민족민중의 자주권을 보장할 수 없죠. 외세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과도 같은 정권이 판을 치는 나라는 민족민중의 보람있는 삶의 터전으로, 참다운 조국으로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민족민중의 자주성을 중심으로 영토와 민족, 민중의 주권을 전일적으로 결합시켜 조국에 대한 견해를 정립해주셨습니다. 영토와 민족, 민중, 주권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 그 나라는 민족민중의 보람된 삶의 요람으로 진정한 어머니조국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의 조국관을 밝혀주심으로써 조국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됐고 민중의 참 조국을 위한 투쟁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주체의 조국관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선 주체의 조국관의 사상이론적 기초에 관한 심오한 분석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으로써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애민사상인 동시에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며 조국의 융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사상입니다.≫**

인류사상사에서 **김일성**주의처럼 조국과 민족, 민중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사상은 없습니다. 주체는 애국의 상징이고 그 집대성입니다.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김일성**주의는 가장 숭고한 애민사상, 가장 위대한 애국애족의 사상인 것으로 해 민족민중의 참된 삶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인 진정한 조국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 즉 참다운 조국관의 유일한 사상이론적 기초로 되는 겁니다. **김일성**주의와 배치되는 어떤 사상도 민족민중의 진정한 조국관을 밝혀줄 수 없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본질과 핵을 새롭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조국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상호관계를 밝히시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주체의 조국관을 심화발전시키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민중의 자주성을 중심으로 조국의 본질을 정식화해주셨는데요. 참된 조국은 민중의 보람있는 삶이 꽃피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은혜로운 품, 다시 말씀드려서 민족민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는 요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품,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은 자기영토, 자기 민족민중의 자주성이 보장되고 자주적인 정권이 있는 곳이라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국에 대한 주체적 견해의 본질이며 내용입니다.

조국에 대한 주체적 견해에는 민중중심의 주체적 방법론에 기초해서 조국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상호관계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주어져있습니다. 조국을 이루는 구성요소에서 영토는 조국의 형성과 부강발전을 위한 자연적 조건, 객관적 물질적 조건입니다. 조국을 이루는 요소에서 기본은 민족민중입니다. 이것은 조국을 이루는데서 주체적 요소로 돼죠. 자기의 영토와 민족민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주적인 정권에 의해서만 담보됩니다. 자기의 영토와 자기 민족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고수할 수 있는 자주적인 정권은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건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족민중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자주적인 민중정권을 세우고 자기 영토를 지키고 자주성을 고수하며 자기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민중의 참된 조국은 위대한 수령의 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조국은 곧 민족, 민중의 위대한 수령의 품, 다시 말씀드려서 참된 조국은 곧 수령의 품이라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조국관의 근본핵이 있습니다. 참된 조국을 이루는 각 요소들과 그 위치, 상호관계를 민중의 자주성실현을 중심으로 수령문제를 핵으로 해서 분석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조국관을 심화발전시키신 사상의 독창성과 과학성의 원천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와 민족을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만이 민족민중의 참된 조국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밝히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이 문제를 올바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주의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개개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과 민족적 특성에 걸맞게 변혁투쟁을 진행하는 것을 국제주의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데 대해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민족적 기반과 지지를 잃게 됐고 계급적으로도 그 기반이 약화되어 좌절과 붕괴운명을 면치 못하게 됐던 겁니다.

사회주의는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민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위업이죠. 사회주의가 자기 민족민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민족민중의 열렬한 공감과 지지속에 전진해 나가도록 하려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해야 하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견지해야할 근본원칙으로 명시해주심으로써 비로소 사회주의와 민족이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게 됐고 참된 조국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한 사회주의로 돼야 한다는

새벽을 여는 우리의 교실

-주체의 조국관의 정립과 심화발전
-주체의 조국관의 특징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활동, 어떻게 벌어졌나
-조직적 거점 형성하고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것이 뚜렷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조국관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신 탁월한 사상이론적 공헌의 하나로 되는 겁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에 대한 주체적 견해를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셨을 뿐아니라 조국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해서 수령결사옹위, 혁명적 동지애, 자력갱생과 낙관주의정신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헌신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조국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새롭게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조국에 대한 주체적 견해와 관점, 입장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시고 정식화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참다운 조국관, 주체의 조국관을 지닐 수 있게 됐고 우리 민중은 진정한 조국을 세우고 수호하며 그의 무궁번영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따라 힘찬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진보적 인류에게 참된 조국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건설하고 수호해야 하는가를 밝혀주시고 우리 모두를 보람찬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자긍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과감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김일성주의강좌
주체91, 4월 22일～23일

주체의 조국관의 특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주체의 조국관은 조국을 사람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어머니의 품, 수령의 품으로 보고 수령의 영도는 조국의 생명이고 조국운명이자 민중의 운명이며 조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관점과 입장에서 조국을 대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일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주체의 조국관은 선행한 모든 조국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주체의 조국관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의 조국관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주체의 조국관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데요.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주체의 조국관이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조국관이고 조국관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된다는 걸 똑똑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조국관의 특징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해서 전개된데 있습니다. 주체의 조국관은 조국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으로부터 조국관확립의 합법칙성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조국관확립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해서 전개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조국관이 수령관을 핵으로 전개돼야 하는 건 우선 조국건설에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됩니다. 수령은 민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서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전략전술로 민중의 변혁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입니다. 수령은 조국건설의 위대한 영도자인만큼 조국관은 마땅히 조국건설에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해서 전개돼야 하는 겁니다.

조국관이 수령관을 핵으로해서 전개돼야 하는 건 또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참된 애국자의 제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수령의 위업, 수령이 이끄는 길은 곧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이고 민중의 참된 삶과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참된 애국자의 제일 생명인겁니다. 주체의 조국관은 이처럼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해서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독창적인 조국관입니다.

주체의 조국관의 특징은 또한 그것이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데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지적하셨습니다.

>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애국주의입니다.≫**

조국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입장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은 자기 민족을 아끼고 적극 내세우며 민족자체의 힘으로 살려는 사상의식인 민족자주의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철저히 견지할 때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고 민족자주의식을 견지할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모든 문제를 제정신을 갖고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조국관이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건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이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되고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밝힌 바와 같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써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입니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은 그들의 계급적 입장과 근본이익을 옹호하고 자본가계급을 비롯한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증오하는 사상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견결히 고수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되고 보장되는 겁니다. 주체의 조국관은 이처럼 민족자주의식과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자체에 구현하고 밀접히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하며 조국의 무궁한 융성번영을 위한 성업에서 위대한 힘을 낳는다 하겠습니다.

조국관이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다음으로 변혁투쟁이 노동자계급의 영도밑에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해서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민족은 민중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서 보람찬 삶을 마련해나가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기본단위이고 변혁투쟁이 실현되는 단위입니다. 개개 나라의 변혁투쟁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민중입니다. 자기 나라에서의 변혁투쟁을 다른 나라 민중이 대신해줄 수 없는 거죠. 자기 나라의 변혁투쟁을 자기가 책임지고 수행해나갈 때 세계앞에 지닌 국제적 임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변혁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변혁투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민족자주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민족자주의식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상의식이죠.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정신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 민족의 이익에 부합되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표현됩니다.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 건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결조건인데요. 민족자주의식이 높은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것이 없는 민족은 망국노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은 변혁운동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혁운동가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자기 나라 변혁투쟁에 충실하는 참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제식민지시기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조국광복의 길에 나선 항일투사들은 조국과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진정한 애국자들이였습니다. 일제가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떠들면서 우리의 말과 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고 모든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던 민족수난의 시기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외없이 민족개량주의자로, 시정배로 굴러떨어졌었죠. 그러나 항일투사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중의 힘을 굳게 믿었기에 **김일성**주석님의 영도따라 일제와 장구하고도 피어린 투쟁을 벌여 마침내 조국광복을 성취했습니다. 이처럼 주체의 조국관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의 유기적인 결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조국관의 특징은 또한 집단주의적 사상관점이라는데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주체적 견해, 관점과 입장은 개인의 이익 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변혁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수행되고 사회적 집단의 이익, 민중의 이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실현되어 나갑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어 있고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들의 치부를 위한데 있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목적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치부욕에 있고 그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만 충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착취계급사회에서의 국가는 한줌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국을 내세웁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본질적 특성이고 사회주의생활의 기초입니다. 주체의 조국관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입니다. 우리가 조국에 관해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건 대를 이어 살면서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 민중의 처지와 운명인데요. 그건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고 사회발전의 동력인만큼 민중을 떠나서는 조국에 대해 정확히 고찰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민중의 이익을 떠나 개인의 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조국에 대해 곧잘 떠드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의 안일과 치부, 명예를 위한 이기적 목적에서 출발한 겁니다. 집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집단주의사상이 나올 수 없고 조직생활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집단과 조직에 성실할 수 없고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몸바쳐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생활을 잘할 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이 나올 수 있고 변혁투쟁에 몸바쳐 나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요람이며 행복의 원천인 조국의 부강발전은 사람들이 일심단결되고 조국과 민중의 이익,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는 기풍을 발휘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체의 조국관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곧 단결을 낳고 단결은 무궁무진한 힘을 낳습니다. 단결은 위력한 투쟁의 무기입니다.

한민전 전위투사들은 투쟁조직을 더욱 굳게 결속하고 조국과 집단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단결, 합심해 변혁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야 할겁니다.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은 이북 땅위에 겨레가 안겨 살 참된 조국을 훌륭히 마련해주시고 번영에로 이끌어가시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자주, 민주, 통일성업에 끝까지 충실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김일성주의강좌
주체91, 4월 26일～27일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활동, 어떻게 벌어졌나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친필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활동이 어떻게 벌어졌는가하는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각계 민중속에 침투하기 위한 대중정치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중정치활동은 변혁운동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입니다. 조국광복회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로 급속히 확대해 나가기 위한 활동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넓혀나가는 활동은 오직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각계층 민중들 속에 깊이 침투시켜 그들의 열의를 최대한으로 고양시키는 기초위에서만 원만히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침투시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관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침투시키기 위한 대중정치활동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심어주는데 첫째가는 힘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항일투쟁시기 정치공작원들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충성심은 조국광복회회원들과 지방 핵심들, 애국적 민중들의 한결같은 생활적 신조로, 정치적 신념으로 굳어졌고 또 그분은 각계층 민중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는 위대한 태양으로, 민족의 구세주로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에서는 그 강령의 작성자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는데 첫째가는 힘을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937년 여름,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는 도천리, 신파지구 공작활동을 하실 때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을 하면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선행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각계층 군중들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존경심과 신뢰의 정을 품게 했던 겁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은 또한 모든 선전역량과 선전수단을 동원해서 민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됐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선전활동은 공장, 광산을 비롯한 산업지구들과 농촌마을, 야학과 마실방, 밭머리와 산판, 명절놀이터와 우물가 등 민중이 있는 모든 지역, 모든 곳에서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당시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 출판물들도 **김일성**주석님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해설, 침투하는데 모든 힘을 돌렸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주제로 한 혁명적 노래와 시도 많이 창작되고 보급됐습니다.

지난 항일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침투시키기 위한 대중정치활동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심어주는데 첫째가는 힘을 돌렸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은 또한 모든 선전역량과 선전수단을 동원해서 민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됐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은 또한 각이한 계급계층의 특성에 걸맞게 조직, 전개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1936년 5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입수한 항일투사 김책동지는 그 강령을 한자, 한자 목판에 새겨가지고 수백부나 찍어냈습니다. 그가 찍어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북만주의 항일연군부대들과 각 현의 지방투쟁조직들에 널리 배포돼 만사람의 심장마다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요하현 삼의툰의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도 격문을 발표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회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들은 격문에서 ≪제군들이여! 조국을 잊지 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방, 당파를 불문하고 사소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반일을 하는 동포들은 모두 단결하여 반일공동선전에 매진하자. 일반 동포들은 돈있는 사람은 돈을, 무기있는 사람은 무기를, 노력있는 사람은 노력을 조국독립을 위한 반일전선에 바치라≫고 호소하면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선전을 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은 또한 각이한 계급계층의 특성에 걸맞게 조직, 전개됐습니다. 그때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선전은 변혁운동의 기본 군중인 노동자, 농민의 특성에 걸맞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조직, 전개됐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은 벌목장이라든가 광산, 공장, 그리고 농어촌 등 노동자, 농민들이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민족적 멸시와 천대, 계급적 압박의 근원에 대해 차근차근 일깨워주면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그들의 생활상 요구와 밀접히 결부해서 해설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풍산땅에서 활동한 한 정치공작원이 수전공사장의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전선노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을 그들의 생활상 요구와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한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선전은 노동자, 농민들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과 종교인들 속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생활감정 등에 걸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선전에서는 반일사상과 민족적 긍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은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애국명장들과 민중들의 외세침략반대투쟁에 대해 소개선전하여 민족적 긍지를 가지게 한 다음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점차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내용을 침투했습니다.

압록강 연안 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한 정치공작원이 1937년 봄에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한 노인을 꾸준히 교양해서 반일투쟁에 나서게 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종교인들 속에서의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은 반일감정과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의 특성에 걸맞게 했습니다. 당시 천도교도, 불교도, 기독교도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그 교리가 서로 다른데로부터 신조 역시 서로 달랐으며 지난 시기 반일투쟁에 참여한 종교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매 신도들의 종교적 특성에 걸맞게 조국광복회강령을 선전하는 것은 그 활동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공작원들은 천도교인들에게 갑오농민전쟁이라든가, 의병투쟁에 참여한 애국적 천도교인들의 의로운 활동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얘기해주면서 그들의 민족적 긍지와 애국적 감정을 북돋아주는데 기초해서 점차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의 내용을 해설해서 그들의 반일투쟁 열의를 높여주었습니다.

이같은 활동은 하층교인들 속에서뿐 아니라 천도교 상층 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은 천도교 장백현 종리원장과 천도교 청년단 풍산군대표, 천도교 함경남도의 한 도정을 비롯한 천도교 상층들을 반일의 길로 적극 이끌면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을 전달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지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했고 또 전국적인 범위에서 천도교인들을 교양해서 조국광복회 조직에 묶어 세우도록 했던 겁니다.

이밖에도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투쟁조직들은 반일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생활형편, 정견과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적극 선전해 그들을 굳게 묶어 세우도록 했던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정치공작원들의 선전활동이 활발히 벌어짐에 따라 **김일성**주석님께서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은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는 물론 만주의 넓은 지역에 퍼져갔으며 그것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들에게 조국광복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 희망의 등대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 선전활동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 운동강좌
주체91, 4월 23일~26일

조직적 거점 형성하고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농민들을 교양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의 조직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에 조직적 거점을 형성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벌이셨는가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적 거점이라 할 때 그것은 조직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곳, 혹은 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의거해야할 지점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족해방과 주권전취를 위한 변혁운동에서는 일정한 지역에 조직적 거점을 형성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자기의 조직망을 넓혀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합법적인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적 거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조직망을 확대하기는커녕 이미 결성된 조직자체도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유지, 보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항일투쟁시기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강화한 경험이 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본침략자들은 도처에 저들의 침략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무력을 수많이 배치해놓고 삼엄한 경계와 감시, 그리고 파쇼적 폭압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전국적 판도에서 동시에 내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강력한 조직적 거점을 꾸리고 그에 의거해서 점차 조직망을 넓은 지역에 확대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정한 지역에 조국광복회의 조직적 거점을 꾸릴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런 지역으로 백두산을 위시한 그 주변일대를 선정하셨던 겁니다.

그럼 **김일성**주석님께서 왜 백두산을 위시한 그 주변일대를 조국광복회의 조직적 거점으로 선정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이 일대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나 주민구성으로 보나 그리고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보나 여러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 일대로 말하면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활동지대로써 일본침략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던 지역이였고 여기에는 밀영망도 매우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여기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일대는 주민구성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의 식민지약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온 가난한 우리 나라 농민들과 망명해온 애국지사들, 지난 시기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으로써 주민들의 반일감정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일대는 일찍이 **김일성**주석님의 아버님이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활동하셨고 **김일성**주석님께서 아버님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 광범위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이신 유서 깊은 지대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일대는 험준한 산발과 원시림으로 뒤덮인 하나의 자연요새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깊이에로까지 뻗어나가면서 조직망을 늘여나가기에도 매우 유리한 자연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적 거점이라 할 때 그것은 조직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곳, 혹은 투쟁을 조직전개하는데서 의거해야할 지점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족해방과 주권전취를 위한 변혁운동에서는 일정한 지역에 조직적 거점을 형성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자기의 조직망을 넓혀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합법적인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적 거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조직망을 확대하기는커녕 이미 결성된 조직자체도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유지, 보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밖에도 백두산을 위시한 그 주변일대는 조국광복회조직의 거점을 형성하고 그에 의거해서 점차 그 조직망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넓혀 나가는데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36년 5월에 5일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동강밀영에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백두산일대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시려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진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침략자들은 이 일대에 수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한편 지방통치기구를 보강하고 또 통치체계도 일층 강화하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백두산일대를 조국광복회운동의 중심거점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대에서 적들을 군사정치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무송현성전투와 동강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를 몸소 조직진행하시어 백두산 중심지역일대를 장악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성원들과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백두산일대의 여러 지역에 파견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일대에서 정치공작활동을 맹렬히 벌이면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비롯해서 조국광복회의 사명과 성격, 임무 등을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의 대민홍보활동을 알차게 벌인데 기초해서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을 그물처럼 펴놓아 이 일대를 강력한 조직적 거점, 지하투쟁 전구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 조직적 거점을 발판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전국적 판도에로 확대해 나가셨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간고하고 복잡한 여건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항일무장투쟁과 조국광복회활동이 급속히 확대발전하는데 극도로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면서 조국광복회 조직선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는 활동에서의 난관은 일제침략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함께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해서 더 컸습니다. 종파분자들은 민중과는 동떨어져 공리공담만을 일삼으면서 전민족의 반일애국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셨습니다. 국내외의 중요한 지역들에도 조직적 거점을 꾸리시고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조국광복회 창립이후에 우리 나라 함흥, 흥남지구를 거점으로 해서 조국광복회 국내 하부조직의 하나였던 흥남지구위원회가 결성됐던 사례가 바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함흥, 흥남일대는 대규모의 비료공장과 화학공장, 알루미늄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일본침략자들의 병참기지의 하나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흥, 흥남지구는 변혁운동의 주력군인 노동자계급이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또 우리 나라 동북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도시의 하나로써 지역적 거점을 형성하기엔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은 흥남비료공장, 흥남화학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 들어가 그곳 실태를 파악한 다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친목회라든가 야학 등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교양하면서 그들 속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반일민족통일전선사상을 해설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전투성과들도 소개선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흥, 흥남주변의 농촌마을들에도 자주 드나들면서 대민홍보활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이같은 활동에 의해서 함흥, 흥남지구에도 조직적 거점이 형성되고 마침내 조국광복회 흥남지구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었고 이 지구의 광범위한 군중이 조국광복회 조직의 주위에 굳게 결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을 위시한 그 주변일대와 국내외의 중요한 지역들에 조국광복회의 조직적 거점을 꾸리심으로써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함경도일대는 물론이고 신의주를 비롯한 평안도일대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일대,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일대 등 전국각지로 급속히 확산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광복회의 기치아래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묶어세울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서술돼 있는 지난 항일투쟁경험중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에 조직적 거점을 형성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조국광복회 조직망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벌이셨는가 하는데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국의 소리 - 운동강좌
주체91, 4월 27일~28일